

보도시점 (온라인) 2026. 2. 12.(목) 16:00
(지 면) 2026. 2. 13.(금) 조간

설 명절 앞두고 이재민 지원현황 점검

- 재난지원금 등 지급, 임시조립주택 안전관리, 재해복구 추진상황 등 전반 점검
-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, 직접 현장 찾아 이재민 위로 및 안전관리 철저 당부

□ 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는 설 명절을 앞두고, 지난해 발생한 초대형 산불과 호우 피해로 임시조립주택에 거주 중인 이재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피해 지원과 보호 상황 전반을 점검했다.

○ 이번 점검에서는 ▲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(이하 ‘재난지원금 등’) 지급 현황, ▲임시조립주택 안전관리, ▲심리상담 및 치료 연계 등 심리 지원, ▲재해복구사업 추진 상황을 중점적으로 살폈다.

< 재난지원금 등 지급 현황 >

□ 지난해 산불·호우 피해 복구비는 총 4조 7,253억 원(피해액 2조 2,126억 원)*으로, 이 중 재난지원금 등은 8,457억 원이 배정되어 7,563억 원(89.4%)이 지급 완료됐다.

* (산불) 피해액 1조 818억, 복구비 1조 8,809억, 생활안정지원금 4,953억 중 4,405억(88.9%) 지급
(호우) 피해액 1조 1,308억, 복구비 2조 8,444억, 재난지원금 3,504억 중 3,158억(90.1%) 지급

○ 미지급된 894억 원은 증빙서류 보완 등 선행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월 1회 이상 점검하며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.

< 임시조립주택 안전관리 및 지원 >

□ 지난해 산불·호우 피해로 현재 임시조립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는 산불 피해 지역 5개 시·군 2,287세대와 호우 피해 지역 2개 시·군 8세대다.

※ (산불) 경북 안동·의성·청송·영양·영덕 / (호우) 충남 예산, 경남 합천

- 모든 거주 세대를 대상으로 전기·가스·소방·난방설비 점검과 수도 동파 예방조치를 완료했으며, 명절 기간 중 위급상황에 대비해 비상연락체계 안내와 안전교육도 실시했다.
- 또한, 안전 점검을 통해 상수관 열선 주변에 가연성 물질을 두거나 거주 단지 인근에서 임의로 불을 피우지 않도록 안내했으며, 폭설 대비 제설제 비축과 낙엽제거 등 배수로 정비도 함께 이뤄졌다.
- 한편, 정부는 산불로 주택 전파 피해가 확인된 주민에게 1억~1억2천만원*의 지원금을 지급 완료했다.
 - * 전파주택 지원(1억~1억2천) = 지원기준(2천~3천6백) + 특별위로금(6천) + 성금(2천~2천4백)
- 이와 함께 산불 피해 주민의 주택신축을 위해 설계감리비 50% 지원, 측량수수료 및 취·등록세 감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, 도시주택기금을 통해 1.5% 저리융자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.
- 또한 임시조립주택에 거주하는 이재민을 대상으로 매월 40만원(한국전력 20만원, 경상북도 20만원)의 전기요금이 지원되고 있다.
- 아울러,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2일(목) 충청남도 예산군 임시조립주택을 방문해 이재민을 격려하고, 난방시설 작동 상태와 출입구 병판길 안전조치, 전기·소방시설 관리 상태 등을 직접 점검했다.

< 심리상담 및 치료 연계 등 심리지원 >

- 산불·호우 재난 경험자 대상 심리상담은 지난해 말 기준 총 2만 8,766건(산불 2만 3,468건, 호우 5,298건) 진행됐으며, 이 중 고위험군 361명은 보건복지부 국가트라우마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해 심층 치료를 지원했다.
- 앞으로도 재난 심리 회복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정부*와 협력해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.
 - * 이웃과 공예작품을 만드는 마음건강백세 프로그램(경북 의성), 마음치유 노래교실(경북 청송) 등

< 재해복구사업 추진 상황 >

- 산불 피해지역 복구사업은 총 851건 중 331건(39%)을 완료했고, 520건(설계·발주 등 행정절차 98건 포함)은 진행 중이다.

- 특히 산불로 마을 전체가 소실된 지역은 공동체 회복·지원사업으로 3개 사업, 24개* 지구를 선정했다. 이 중 행정안전부는 마을단위 복구·재생사업 (5개 지구)을 통해 기존 공간을 활용한 테마형 시설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.

* (행안부) 마을단위 복구·재생 5개, (국토부) 특별재생 2개, (지방정부) 마을기반조성 17개

- 호우 피해지역 복구사업은 총 9,104건 중 3,272건(36%)을 완료했고, 5,832건(설계·발주 등 행정절차 1,064건 포함)은 진행 중이다.

- 행정절차 간소화 교육과 복구사업 추진 상황 점검·독려를 통해 2024년 호우 대비 준공률은 5.8%p, 공사 추진율은 22.5%p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.

-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매월 점검을 통해 재해복구 추진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, 설 이후 해빙기와 여름철 우기에 대비해 주요 공정을 적기에 완료하는 등 시기별 재난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.

-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“임시조립주택에 거주하고 계신 이재민들께서 설 연휴를 안전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”라며,

- “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지방정부와 협력해 복구와 지원에 속도를 높이겠다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재난복구지원국 복구지원과	책임자	과 장	박종빈 (044-205-5310)
		담당자	사무관	문균호 (044-205-5314)
		담당자	사무관	신명수 (044-205-5321)
담당 부서	재난복구지원국 재난구호과	책임자	과 장	정종율 (044-205-5330)
		담당자	사무관	송원필 (044-205-5334)
담당 부서	재난복구지원국 재난현장지원총괄과	책임자	과장직무대리	이상규 (044-205-5511)
		담당자	사무관	양영식 (044-205-5517)
담당 부서	경북·경남·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및재건지원단 복구·재건지원과	책임자	과 장	김형석 (044-205-5841)
		담당자	사무관	김성환 (044-205-5843)